



## 입술포진 연고

### 요약

입술포진 연고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입술 주변의 포진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아시클로버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입술포진 연고의 주요 성분이며,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입술포진 연고는 입술포진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특히 재발성인 경우에는 발병 전에 나타나는 증상 또는 물질이 처음 나타날 때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외국어 표기

ointments for herpes labialis (영어)  
口脣疱疹 軟膏(한자)

동의어: 구순포진 연고, 입술 헤르페스 연고

유의어·관련어: 항바이러스제, anti-virus agents, 구순포진 치료제, 입술포진 치료제, 입술물집약, 아시클로버, acyclovir, 에이클로, 티로트리신, 티로트리신겔

### 입술포진

입술포진은 단순포진\* 바이러스(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술에 작은 수포(물집)가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구순포진, 단순포진으로도 불리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자주 재발하게 된다. 이는 입술포진에서 회복되었더라도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입술포진은 보통 1~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처음에는 입술 주변이 가렵고 따끔거리다가 조그만 물집이 생기게 되며 나중에는 이 물집이 터져 딱지가 앉았다 떨어져 나가면서 입술포진이 사라지게 된다.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기 전에 입술포진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단순포진(단순헤르페스, herpes simplex):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균집을 이루는 작은 물집을 보이며 그 자리에 가려움이나 작열감을 호소하는 급성 수포성 질환이다.

## 약리작용

입술포진 연고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입술 주변의 포진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아시클로버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입술포진 연고의 성분이다.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의 유전정보 등을 담고 있는 DNA 또는 RNA의 구성 요소인 구아노신(guanosine)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할 때 구아노신 대신 DNA에 결합함으로써 복제를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한다.

아시클로버는 그 자체로 DNA 복제를 차단하지 않는다. 아시클로버가 위의 약리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학구조가 총 세 번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키나제(kinase)라는 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아시클로버는 인체에 있는 키나제보다 바이러스의 키나제에 300배나 더 큰 친화력을 갖고 있으므로, 감염되지 않은 정상 세포에서는 DNA의 복제 차단이 발생되지 않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시클로버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의 복합제도 입술포진의 치료에 사용된다. 히드로코르티손은 염증 완화 및 면역억제효과를 나타내며 궤양\*성 입술포진으로의 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입술포진 생긴 후 포진이 터져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티로트리신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티로트리신은 항균 폴리펩타이드 혼합체로, 티로시딘과 그라미시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티로시딘은 박테리아 세포벽을 공격하여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그라미시딘은 균 세포의 붕괴를 촉진시킨다.

\* 궤양(ulcer): 점막 아래쪽까지 손상되어 조직이 폐인 상태

## 효능·효과

입술포진 연고의 효능·효과는 단일제 또는 복합제에 따라 조금 다르다. 아시클로버 단일제는 입술포진을 포함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되며, 초기 또는 재발성 모두에 사용된다. 아시클로버와 히드로코르티손의 복합제는 재발성인 입술포진의 초기 치료에 사용된다. 단일제에는 아시클로버® 등의 제품이 있으며, 복합제에는 에이클로® 등이 있다. 참고로 입술포진 연고 또는 아시클로버 연고 등으로 많이 불리나, 실제 제형은 크림제\*이다. 티로트리신은 티로트리신 감수성 균에 감염된 외상, 긁은 피부감염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티트로신겔® 등이 있다. 티로트리신도 실제 제형은 연고가 아닌 겔제†이다.

\* 크림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약물 성분이 오일 성분에 비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묽으며, 피부에 더 빠르게 흡수된다. 이에 비해 연고는 오일 성분이 추가 되어 피부에 오래 머무르며 천천히 흡수되는 차이점이 있다.

† 겔제: 크림보다도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르게 건조되고 끈적거림이 덜하다.

## 용법

입술포진 연고는 단일제, 복합제 모두 약 4시간 간격으로 1일 5회 환부에 5일간 바른다. 단일제의 경우 5일간 사용 후에도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5일간 더 사용할 수 있다.

티로트리신겔은 감염된 부위에 1일 2~3회 적당량을 바른다.

## 금기

- 입술포진 연고는 수유 중인 여성과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 아시클로버와 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결핵, 칸디다증 등 감염성 질환자, 대상포진, 수두 등 단순포진 바이러스를 제외한 바이러스 질환자, 옴 등 동물성 피부감염증 환자, 입 주위 피부염, 여드름 환자, 심근경색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이즈 환자, 골수이식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티로트리신겔은 임부 또는 수유부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아시클로버 단일제는 에이즈 환자나 골수이식 환자 등 면역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환자들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 입술포진 연고는 입술포진의 초기 단계에 투여를 시작하며, 특히 재발성인 경우에는 발병 전에 나타나는 증상인 입술 주변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물집이 처음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입술포진 연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감염, 또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재발성 단순포진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입술포진 연고가 입술 부분 외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을 바를 때 골무나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도록 한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작용

입술포진 연고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으로 바른 부위의 일시적인 작열감, 찌르는 듯한 통증, 접촉 피부염, 습진,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 피부 탈색, 발진, 얼굴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시클로버와 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는 등 시각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